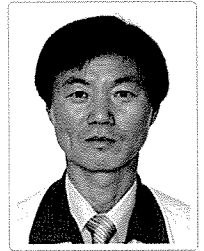


“경영층의 마인드가 안전보건을 좌우한다”



도주환 | 삼익LMS(주) 안전보건부장

지난 제38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도주환 삼익LMS(주) 안전보건부장(연합회 대구경북환경기술인협회 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도부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식구들은 물론 주위 모든 이들의 도움으로 받은 모두의 상이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에 위치한 삼익LMS(주)는 1960년 5월 10일 기계산업의 수공구인 철공용 줄(FILE)을 생산,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출발했다.

그 후 1972년부터 철제쌀통(삼익쌀통)을 제작해 가정용품으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산업설비와 공장자동화에 필수적인 직선운동시스템(LM가이드 시스템)을 취급한 후 이 분야의 세계적 대메이커인 일본의 THK사와 손을 잡는 등 꾸준한 연구개발로 ‘국내 산업설비의 자동화 촉진에 기여한다’는 슬로건 아래 국내 제1의 LM시스템 전문업체로 발돋움한 회사이다.

LM가이드는 현재 삼익LMS의 주력상품으로 반도체 및 IT관련 제조장비, LCD 및 PDP 등의 제조장비는 물론 공작기계와 산업기계, 정밀측정기기, 자동차 제조 관련장비 등의 직선운동부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요소로서 모든 기계의 성능과 정밀도를 좌우하는 핵심부품이다.

“저희 회사는 LMS(Linear Motion System)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자동화 설비에 필수불가결한 LM가이드를 국내 최초로 생산, 판매하는 등 국내 산업발전의 자동화와 IT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도부장은 설명한다.

도주환 부장은 지난 79년에 입사해 올해로 27년여 동안 안전업무를 맡고 있는 베테랑이다. 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안전과 함께 삼익LMS(주)에서 보냈다.

그는 회사의 안전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숨쉬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역할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역할은 습득한 안전기술을 잊거나 소홀하지 않고 현장에서 계속 지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입사원부터 일반사원, 특수직 종사자, 관리감독자에 이르기까지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에 꼭 필요한 교육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며, 현장에서

는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작업자 모두가 안전기술자가 되어야 한다는게 그의 지론이며, 이를 경영층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 언제든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체계를 갖췄다. 안전분야에 대한 제안제도를 실시하여 끊임없이 현장의 안전수준이 증진되도록 유도함은 물론 우수제안자나 안전활동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제도를 통하여 전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안전활동 우수부서로 선정될 경우 포상도 하지만 다른 산업장의 모범사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다. 자연스럽게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대 학에서 안전분야에 대한 강의를 할 정도로 내외 부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도부장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안전분야에 대하여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표창의 의미도 앞으로 할 일을 더 많이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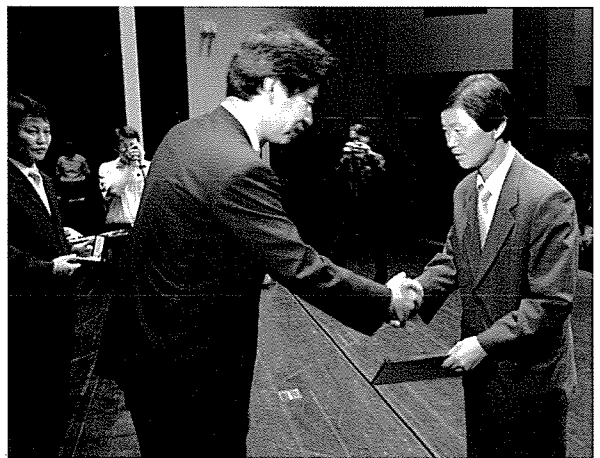
또한 이번 수상과 관련 경영층의 뒷받침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강조하면서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려해도 경영층의 의지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그는 회사의 경영층을 자랑한다.

삼익LMS(주)가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무재해 7년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경영층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도 주환 부장은 “첨단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저변에 안전이 튼튼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소임을 다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소박한 포부를 밝히면서 말문을 닫았다. ◀



▲ 삼익LMS(주)에서 직원들과 근무하는 모습



▲ 제 38회 산업안전 보건대회에서 대통령표창 수상하는 장면